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東光] 제3권6호 (1931년 6월)

萬一 오늘날 朝鮮의 將來를 議論하고자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朝鮮이 過去의 朝鮮과 달라서 모든 情勢가 世界的 朝鮮이 된 以上 먼저 世界的 大勢 또는 思潮의 動向이 어떠한 方面으로 趨移하는가 하는 것을 明確히 把持치 아니하면 朝鮮의 將來를 豫測할 수 없을 것은 勿論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一步를 進하여는 朝鮮民族이라는 自體가 過去 文化的 生活에 있어서, 民族的으로 어느 程度까지 그 能力을 發揮하였는가 하는 것에 對하여 歷史를 參照하여 正確한 觀念과 自信을 把持치 아니하면 또한 그 將來를 論斷하기는 不可能한 일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먼저 朝鮮民族의 文化的 能力을 歷史적으로 溯究하고 또한 朝鮮과 不可離한 環境, 情勢를 世界的으로 通觀치 아니하면 朝鮮의 將來가 如何히 進展될가 하는 結論을 斷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朝鮮民族이 過去 歷史적으로 보아서 完全한 文化的 能力을 가졌다 하는 것은 세계의 學者가 公認하는 바 다시 贅言을 不要할 것이다. 그러나 高句麗, 新羅, 高麗로부터 李朝의 末葉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文化가 特殊한 一變化를 일으키지 못하였으니 元來 東洋文化 自體가 家族制度主義와 封建制度의 思想의 領域內에서 脫出치 못한 것이 그 重大한 原因이다. 그러므로 吾人은 過去 同一한 規範으로 歷代王朝가 變遷하게 된 事實에 있어서는 特別히 쓸 것이 없다. 한번 文藝復興과 佛國의 大革命으로 因하여 民權自由의 世界的 思潮가 滔滔히 東洋政局을 汎濫하게 됨을 따라서 朝鮮半島도 政治적으로 文化的으로 數千年以來의 大變動과 大改革을 일으키게 된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나 世界的 文化에 뒤떨어진 感이 있는 것은 現下 世界文化의 源泉인 歐美의 東洋에 對한 地理的 干係가 重大한 原因을 作하게 한 것이다. 海洋적으로 輸入된 歐美의 文化는 日本의 維新을 作하였고 大陸적으로 輸入된 歐洲의 文化는 中華大陸의 遮斷으로 因하여 近代에 있어서도 朝鮮의 世界文化에 接觸이 가장 遲鈍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지금부터 六十年前의 甲申政變의 改革運動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勿論 甲申政變의 改革運動이 特殊階級에 局限되었고 또는 失敗에 歸하였지만은 朝鮮社會에 重大한 波動과 影響을 일으킨 것만은 確實한

事實이다. 이思潮가 韓末 六十年을 통하여 或은 獨立運動이 되고, 或은 憲政運動이 되고, 或은 社會改革運動이 되고, 或은 新教育 普及運動이 되어서 一進一退의 形勢를 일으키게 된 것도 過去의 事實이다. 이것은 獨立協會, 自強會, 大韓協會, 各地方學會의 勃興 等等으로 보아서 이것을 證明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運動이 暫起暫滅의 形勢에 그치게 된 것은 民衆의 完全한 覺醒을 土臺로 한 것보다 一部 知識階級의 運動에 起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庚戌의 大變革으로 因하여 潛在되었던 民族的 意識이 더욱 尖銳化하게 되고 또 普通教育의 普及으로 因하여 民衆적으로 世界的 文化와 思潮를 完全히 普及感受하였다. 이것이 곧 己未運動의 發端이 된 것이다. (以下 省略).